

그리운 님들께

거룩한 땅,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순신입니다.

1. 저희 가족은요...

대찬이는 5월 16일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고,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예원이는 윤**의 의료농단으로 희생양이 되어 길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어 냈습니다. 견디어 내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아내는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에 있는 아이들 신경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대찬이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2월초 키르에 들어와 P500 사역에만 집중했고, **작전상 거북선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2. 외무르불라그ㄴㅎ

안정 속에서 천천히 성장하고 있고, 찬양은 늘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여전히 ㅇ배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기쁨이 샘솟습니다.

고려인 **디아형제**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모스크바로 돈 벌러 갔던 **술.탄형제(20세)**가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선 돈 벌기가 쉽지 않아 대학에 적을 두고 자가용으로 잠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꼬마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고, 키르어, 영어, 러시아어를 막힘 없이 구사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엘.누.라 자매도 모스크바에서 직장 다니다가 잠시 귀국하여 3년만에 보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데, 척박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도 잘 성장한 술.탄과 엘.누라를 보니 저의 믿음이 겨자씨 보다도 적음이 확실합니다.

3. IT 학원 :

피터 황선생님이 **행복한 학사관에서** 매주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이사한 새 오피스가 좁고, 수도가 동파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P500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P13(후원자:최상현, 이재은, 유정택, 강태욱)보건소에 새로운 일이 시작 되었습니다. 근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여 구강카메라(모니터)를 통해 자세히 검진을 받았습니다. **변화의 물결!**

합의서에 앞으로는 1년에 1회 향후 20년간 지역의 학생들을 보건소로 불러 모니터로 구강상태를 보여주며 구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새로 명시했습니다. 치과의사는 구강검진 하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야합니다.

현판이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마을들도 하나씩 계속 붙고 있어 저에게 P500 사역에 대한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P13 구강검진)

(구강검진을 받으려고 보건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잘랄라밧주 악스라이온 카라-카무시먼 카라-지가치마을 학교 어린이들. **전교생이 구강검진을 받았답니다.**)

4. P500 진행사항

1) P21~P23 (기간 : 2025.3.3~3.14)

P21. 추이주 판필롭카라이온 카인드시 보건소. 후원자 : 고창중앙(안디옥)

P22. 추이주 자일라이온 은뜨막면 빨따브카마을 보건소. 후원자 : 늘사랑(윤현걸/서명준/김우선/김병철)

P23. 추이주 카라-발타시 국립병원(가정의학센터). 후원자 : 이은영

P23은 주민 120,000명을 커버하는 병원이며, 치과(구강외과)에 기증했습니다.
치과진료실이 설치되는 곳마다 현판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AI의 발전 만큼이나 놀랍고 빠른 변화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철저히 의심하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감사가 흘러 나옵니다.



(이날 저녁 식사시간에 여길 다녀간 무슬림이 **정확히 509 명입니다.**) 추이주 판필롬카라이온, 자일라이온, 카라발타시와 카인드시의 면장, 시의원, 시장, 이맘(이슬람 지도자), 마을 대표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회부의장께서 저를 소개하며 깊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2) P24~P27 잘랄라밧주 찻칼라이온(기간: 3.13~3.28)

수도 비쉬켅까지 승용차로 15시간 거리의 마을들. 그 중 몇 시간은 자갈길을 달려 합의서에 서명하러 왔습니다.(백두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국회의장께서 **사무총장님**을 보내 격려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P500사역을 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알라이벡 아나르쿨로비치와 함께)

P24. 잘랄라밧주 찻칼라이온 카느시-크야면
1번실습센타 후원자:늘사랑 /생동하는

P25. 잘랄라밧주 찻칼라이온 카느시-크야면
장의-바자르 보건소 후원자 : 전청우

P26. 잘랄라밧주 찻칼라이온 떼렉-사이면
종합진료 4번 실습센타 후원자 : 광주월산

P27. 잘랄라밧주 찻칼라이온 떼렉-사이면
숨사르마을 5번 보건소 후원자 : 최상현



3) P28~P31 잘랄라밧주 알라-부카라이온 (기간: 3.13~4.9)

비쉬켄까지 12시간 걸려 도착했고,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상대적으로 찻칼라이온에 비해
나름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울지문덕장군이 살수대첩을 벌였던 압록강
상류 마을 정도라고나 할까요?

P28. 잘랄라밧주 알라-부카라이온
알라-부카마을 보건소 후원자: 윤여상

P29. 잘랄라밧주 알라-부카라이온
발따굴로브면 악-탐마을 4번보건소
후원자:경성대학교

P30. 잘랄라밧주 알라-부카라이온
발따굴로브면 바야스탄마을
(+마다니야트)7번 보건소
후원자: 늘사랑(손미경)

P31. 잘랄라밧주 알라-부카라이온
발따굴로브면 악-코르곤마을 6번보건소
후원자: 캐나다 구오랑



4) P32~P35 잘랄라밧주 수작라이온, 이스쿨주 톱라이온(기간 : 4.16~4.28)

톱라이온과 수작라이온은 향후 P500사역을 지속해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상징적인 곳들입니다. 현재 키르기즈스탄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두 라이온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프라이드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양대 산맥(태백산맥과 낭림산맥)이자 여리고 성이며, 7년간의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을 거두기 위한 최대의 승부처 (명량해전)였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척 힘든 싸움이었지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P32. 이스쿨주 톱라이온

톱마을 치과폴리클리닉 후원자:늘사랑

P33. 이스쿨주 톱라이온 이스쿨면

미하일로브마을 보건소 후원자:최상현

P34. 잘랄라밧주 수작라이온

바르쁘마을 15 번 보건소 후원자:최상현

P35. 잘랄라밧주 수작라이온

빈삽호스마을 23 번 보건소 후원자:홍석의



5. 장애아동 교육과 재활사역

키르기즈스탄에는 장애인이 21만 8천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 아동 재활에 헌신하신 한의사 제레미님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 곳에는 교육과 재활을 같이 하는 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전국의 장애인시설을 빼놓지 않고 다니시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담아

이순신, 박기쁨, 예원(대5), 대찬(대4) 올림